



이혼을 막아볼까요

이윤수 명동 이윤수 비뇨기과병원 원장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이혼율에 대해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병원에서도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조금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찾아왔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더욱이 요즘 나이를 먹어서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 이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을 지나 부부생활에 관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했을텐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다.

철부지 이혼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할리우드 스타를 빼놓을 수 없다. 가장 세인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이혼은 할리우드의 브리트니 스피어스다. 결혼을 한 지 55시간 만에 이혼을 선언하였다. 2004년도 한밤 중에 결혼을 하여 세인을 놀라게 하였다. 어린 시절 친구인 제이슨 알렉산더와 라스베거스에서 결혼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황당한 것은 결혼한 지 3일 만에 결혼을 취소한 것이다. 당시 브리트니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철이 없었다”고 말했으나 재산관계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다.

한편 세기적인 결혼을 자주해서 이름을 날린 할리우드 스타를 꼽는다면 단연 엘리자베스 테일러일 것이다. 무려 8차레나 결혼과 이혼을 되풀이 하였으며 남편들은 한결같이 유명인이었다.

이들의 이혼이 황당한 것처럼 이혼하는 부부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저 정도 이유로 싸우고 헤어지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혼의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성격차이, 성생활 문제, 가족관계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지면서 서로를 증오하기에 이르면서 한계상황에 돌입한다. 이들이 싸우게 된 동기는 사소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번의 갈등과 서운함이 쌓이고 특히 가장 가깝고 자신을 잘 이해해줄 만한 사람이 오히려 속상하게 하면 그 서운함은 더욱 크기 마련이다.

영화를 보면 서구사회에는 이혼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답게 언제나 이혼에는 '돈' 문제가 따르고, 남자가 이혼하려면 나름대로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전부인과 자식에 대한 부양의 책임은 끝까지 따라 다닌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기가 더 쉽지 않고, 그만큼 남자의 청혼이 여자에게 더 큰 기쁨처럼 보인다.

우리의 이혼율도 이제는 남 못지않으니, 이혼의 노하우나 방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순간의 감정 싸움이 눈덩이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도 막아 주고, 화해를 하고 싶어도 중재자가 없어 문제가 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제는 부부싸움을 말려주는 전문적인 중재자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특히 부부의 성문제를 파헤쳐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이 언제부터였는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남자도 남자 나름이겠으나 많은 남자들이 일단 성욕의 발동이 걸리면, 아내와 싸웠던 이유나 아내의 반응이 기분 나빴던 기억이 있었다라든가 잠시 잊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고 하지만, 여자들은 대부분 일단 성욕 자체가 안 생기고 남편이 하도 졸라 일단 시작한다고 해도 감정의 몰입이 어렵다는 말들을 한다. 언제부터 우리 부부가 성관계가 뜸해졌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부부관계 점검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부부갈등 속에는 항상 부부의 성문제가 따라다닌다. 부부의 성을 치료하다보면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부의 갈등을 한 사람의 전문가가 치료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팀워크로 접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 병원에서는 남성 비뇨기과전문의 뿐만 아니라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와 더불어 정신과 전문의, 심리분석 전문가, 심리치료 전문가 등이 팀을 만들어, 늘어가는 이혼부부들이 허망하게 이혼하기 전에 두 사람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처음 결혼의 고귀했던 사랑이 왜 깨어지고, 현재 어떻게 망가져 있으며, 회복을 시켜볼 만한 방법은 없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혼을 앞둔 당사자와 함께 풀어보려는 것이다.

이혼을 바라보면서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의 주체는 사랑일 수밖에 없으며 어떤 사람들이 서로 잘 맞는 부부가 될 수 있는지 결혼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스트레스 대응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다보면 이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갈등이 생겼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치료방법은 없는지 이혼에 이르기 전에 사전에 막고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㉞